

홍콩경찰 위법 경고에도 텐안먼 시위 기념 집회 열려

텐안먼 시위 31주년을 기념하는 촛불 집회가 4일 밤 홍콩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수 천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은 텐안먼 희생자 추모와 함께 '보안법 반대', '홍콩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텐안먼 시위 31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다.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홍콩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날 촛불 추모 행사를 금지하고 8명 이상이 모이거나 8명 이하라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모이면 위법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시민들의 집결을 막거나 강제로 해산하지는 않았다.

추모행사는 1989년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후 8시 9분에 시작되었다. 비슷한 시각 온란인 추모행사도 시작되었다. '천안문희생자 어머니회' 소속인 유웨이제씨는 온라인 메시지에서 "남편과 평범한 시민들이 인민해방군에 의해 사망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빅토리아공원 추모행사를 주도한 홍콩시민지원에 국민주운동연합회 리척안 독재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전 세계의 자유인들이 저항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 "보안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리척안 주석은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이 홍콩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추모행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토리아공원의 집회는 한 시간여 만에 평화롭게 끝났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계속 남아 보안법 반대, 홍콩독립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콩 경찰은 3천여명과 물대포 등을 홍콩연락사무소 등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시위 열기가 고조될 때마다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추모 시위에 앞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홍콩입법회에서 통과됐다.

브라질, 코로나19로 1분에 한 명꼴 사망



▲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브라질 뉴스포털 UOL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는 3일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천349명 많은 3만2천5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1분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이날 사망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17일 첫 사망자 보고 이후 가장 크다. 하루 사망자 증가 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연속 1천 명을 밑돌았으나 전날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만8천663명 많은 58만4천16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1만6천409명, 이달 1일 1만2천247명 늘어나며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전날(2만8천936명)부터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상파울루주가 확진자 12만3천여명·사망자 8천200여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크고, 리우데자네이루주가 확진자 5만9천여명·사망자 6천여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31만2천851명은 치료 중이고 23만8천617명은 완치됐다. 사망자 4천115명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으로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영국·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여름 관광 대목 ... 유럽 각국 속속 국경 재개방

여름철 휴가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 각국이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이어 국경 재개방과 여행제한 완화 조치 등을 내놓고 있다.

유럽국들은 코로나19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이웃국들 간 관광객들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이른바 '여행 버블'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집단 면역 전략을 썼다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스웨덴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럽국들이 아직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유럽국들이자 유럽 대표 관광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여름 휴가철에 앞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광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3일부터 유럽 관광객들에 국경을 개방했

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유럽국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쎌겐 조약 가입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은 다른 대륙 방문 이력이 없을 경우 14일 간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스페인도 관광 재개 준비에 나섰다. 당초 스페인 정부는 7월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15일부터 유럽 역내 국경 개방에 나서며 네덜란드도 대부분 유럽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6월 중순부터 철회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포르투갈도 스웨덴을 제외한 북유럽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4일 여행경보를 '옐로우'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안전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해외여행을 좋다는 의미다.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www.suhl.com
info@suhl.com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San Diego (8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